

수안보지역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 보고서

1996. 10. 30
내무위원회

1. 청원일자 및 청원자

가. 청원일자 : 1996. 10. 15 (제96-2호)

나. 청원자 : 충북 충주시 상모면 235 - 48
이만옥외 48명

2. 심사일정

-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96. 10. 30)
- 의견청취
- 의견개선 및 심의의결

3. 소개의원 및 출석공무원과 진술인

- 소개의원 : 김재근 의원
-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박경국
- 진술인 : 이만옥(청원인)

4. 청원의 배경 및 요지

자연사박물관은 1994년 4월 8일 충청북도지사 (김덕영)가 자연사 수집가인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김동섭)으로부터 세계 130여 국가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10만여점의 지구촌 자연역사 자료를 도에서 기증 받아 국토중앙에 위치한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인 충주시 상모면 (수안보) 조산공원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공공투자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되어 도 및 충주시에서 민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담보 상태에 있으며 시의 재정으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어려우므로 당초 계획대로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내용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창 환)

가. 내 용 :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도에서 추진요망

나. 검토의견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검토한 바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추진배경은 자연사 수집가인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인 김동섭박사가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연 역사자료 10만여점을 도에서 기증 받아 수안보 조성공원내에 전시관을 건립하여 자연과학과 학습장으로 제공하고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첫째, 사업계획 수립단계를 살펴보면,

- 사업계획 수립은 '94 만물전시관 건립추진 계획안 도 보고 (중원군) → '94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 보고(도) → '94 자연사박물관 건립 계획변경 검토보고(도) → '95 자연사 전시관 민자유치 건립 계획안 업무보고(충주시)를 하였는데 . 사업명은 만물전시관 → 자연사박물관 → 자연사전시관으로 변경되었고 . 건축규모는 3,400평 → 3,521평 → 1,060평으로 축소되었으며 . 사업비는 68억원 → 179억원 → 85억원(도비45억, 군비40억)으로 조정되었고 . 사업기간은 '94 ~ '96년(3년) → '94 ~ '97년(4년) → '94 ~ '99년(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사업추진부서는 중원군 → 충주시(시·군통합)에서 민자유치 추진중임.

둘째, 사업비확보에 있어서는

- 총사업비 확보액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도비4억, 시비 2억)이며
- '94년 5월에 중원군의 건의로 도에서 중앙의 2개기관(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국비 6,372백만원 요청하였으나 문예진흥 기금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도에서 문화체육부에 방문 협의한 결과 지방에 건립하는 박물관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이며

- 충주시에서는 자연사박물관 사업추진에 대하여 도 및 기증자와 협의후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96년 9월 도비 보조금 4억원을 반납 조치하였음.

셋째, 부지확보에 있어서는

- '95년 2월에 군유림 3필지 2,446,212㎡와 국유림 6필지 448,858㎡를 교환하여 충주시장이 등기완료 하였고,

'95년 9월에 수안보조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어 자연사 전시관 건립 부지로 확보되었음.

넷째, 민간유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 충주시에서 '95년 10월에 자연사 전시관 민자유치 건립 계획을 마련하여 기업체 및 단체 방문협의 4회, 기업체 현지답사 2회, 홍보유인물 제작 30개기업에 송부 하였으나 수익성사업과 병행할 시 검토가능하다는 일부 기업에서의 답변이었으며

-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유치 대상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시에서는 방문하는 등 민간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수안보지역을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함은 물론 수안보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지역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본 사업은 국고지원없이 지방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서 충주시에서는 재정형편상 국·도비의 지원없이 시비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기증자와 협의한 후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도비 보조 4억원을 반납 조치하였고,

현재 다각도로 민자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건은 제반여건에 대하여 보다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관계부서 및 진술인 의견

(관계부서 의견)

사업 성격상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태이며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충주시장이 확고한 건립의지를 가지고 자연사 전시관과 주변지역을 활용한 각종 수익사업의 개발 등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도에서도 본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 지원 하는것이 바람직함.

(청원인 의견)

·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충주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사업이며, 지금도 공인이 한 도지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있으며

· '95. 8. 11 충주시장이 회의시 민자유치로 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전시관으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으며

자연역사자료 10만여점을 전시할 박물관을 충청도에서 사업 추진이 안될경우 주민들은 원망할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춘식의원(질) : - 자연사박물관 건립비의 도비보조금 4억원을 반납하였는데 그 이유는?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것은?
 -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궁극적인 답변을 한 기업은?
 - LG그룹, 두산건설 등을 방문하였는데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은?

- 내무국장(답) : - 충주시에서 자연사 전시관 건립에 관한 보고회 개최시 설계용역비에 대한 토의결과 도비 4억, 시비 2억원이 확보 되었었는데 참여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설계 집행은 불합리하고 수안보가 아닌 제3지역을 희망할 경우 수용여부 및 기본설계를 할 경우 예산낭비가 초래하여 도비를 반납코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초 자연역사 자료를 도에서 기증 받아 연고지가 있는 증원군이 하는것이 좋겠다하여 증원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 LG그룹, 두산그룹, 동양시멘트, 삼성문화재단 등에서 수익성 사업과 병행시 검토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업체에서도 관람료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숙박 등 부대사업이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 유영훈의원(질) : - 도지사에게 자연역사 자료를 기증하였는데 시행주체는?
 -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를 85억원으로 축소되었는데 도비 보조계획을 갖고 있는가?
 - 사업비 85억중 시에서 40억원을 부담할 경우 도비에서 45억을 지원할 수 있는가?
- 내무국장(답) : - 자료기증은 도에서 받고 군유림교환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비 확보는 공동의 문제이며 도비 및 시비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도비 지원은 재정형편상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8. 심사결과

-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은 자연역사자료 10만 여점을 도에서 기증받아 수안보 조성공원내에 전시관을 건립하여 자연과학학습장으로 제공하고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본 사업은 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것을 촉구키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의견서

-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1994년 4월 8일 충청북도지사가 한국 운석광물연구소장으로부터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연사자료 10만여점을 기증받아 수안보 조산공원내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수안보지역을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함은 물론 수안보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전기를 마련하고자 이지역에 자연사 전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데는 수안보주민 뿐만아니라 도민 모두의 바람으로서

본 사업은 재정형편상 국비 및 지방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간내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줌이 타당함.